

금O과정01B 과학선택과목에 따른 고등학생의 과학 관련 태도 비교
 17:20~17:40 전동렬 정진선
 서울대

고등학교에 제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지 6년째 접어들었다. 제 7차 교육과정은 이전의 교육과정에 비하여 혁신적이고 이상을 구현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으나, 일선 교육 현장의 여건과 맞지 않는 점이 있어 비판을 받아왔다. 과학 교과에 경우 최근 들어 심각해진 이공계 기피 현상과 함께 과학 선택 교과를 편성하여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공계 기피 현상은 과학에 대한 흥미 저하와 과학 기술 자체에 대한 관심 저하, 그리고 과학교과의 학습에 대한 부담감 등 여러 가지 현상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과학교육이 모든 이들을 위한 과학 교육이 되어야 함은 물론 지식뿐만 아니라 과학 태도 역시 중요한 교육 목표로 부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과학 교육 현장에서 정의적 영역의 교육은 도외시 되고 있으며, 과학 교육 연구도 인지적 영역에 치중하고 있다. 학생들의 선택과목에 따라 잘 드러나는 지적 영역의 특성뿐만 아니라 정의적 영역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문계 고등학생의 중 자연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고, 다시 과학 선택 과목 군으로 학생들을 분류하여 선택 과목에 속하는 학생들의 대한 태도를 비교 분석하여 과학 교육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금O과정02B 2007 대학과목선 이수제 시범운영 현황 분석 연구
 17:20~17:40 김경대 김훈 박선미 박일수¹ 이태상²
 KAIST과학영재교육연구소 ¹교원대 ²상지대

대학과목선 이수제(University-level Program; UP) 주관기관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08년 1월의 본 시행에 대비하여 2007년 여름에 대학과목선 이수제를 시범 운영하였다. 시범 운영을 위하여 고려대, 부산대, 상지대, 성균관대,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KAIST(가나다, 한글, 영어 순) 등 8개 대학을 대학과목선 이수제 교육기관으로 등록하였으며,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학생들을 모집하여 2007년 7-8월에 부산대와 상지대를 제외한 6개 대학에서 미적분학, 일반물리학, 일반물리학 실험, 일반화학, 일반화학 실험, 일반생물학, 일반생물학 실험 등의 교과목을 시범 운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범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우선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대상 학생은 대학 자율로 학생들을 선발하여 총 354명의 학생이 수강하였다. 대학과목선 이수제 시범운영의 이수결과를 참여한 학생의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고와 과학고·외국어고·영재학교 학생 비율은 각각 76%, 24%로 나타났으며, 2005년과 2006년의 시범운영에 있어서 일반고 학생 비율이 각각 49.5%와 26%였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특수목적고와 달리 우수학생들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월성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한 일반고 학생들에게 자신의 적성과 수준에 맞는 심화교육을 제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70~90%의 학생이 대학과목선 이수제에 다시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하는 등 대학과목선 이수제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표준교육과정의 활용과 학생 최종성적 분포에서 교육기관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 교육과 평가에 있어서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